

신안

# 花~ 남도의 꽃내음

완도

## 30일 지도읍 '선도 수선화 축제' 개막 내달 '임자도 튜립 축제' 등 잇따라 관광객 입맛 사로잡을 수산물 축제도

1004개의 섬에 각각의 색을 입히는 '1섬1색'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이 이달 말 '선도 수선화 축제'를 시작으로 봄 축제를 잇달아 개최한다.

신안군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지도읍 선도에서 178만 송이 수선화로 꾸민 '신안 수선화 축제'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축제는 '우리의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축제장에서는 봄의 전령사 수선화가 2.7km에 걸쳐 13ha 규모 꽃 대궐을 만든다.

올해 축제에서는 '수선화 정원'과 '잔디광장'이 새로 조성된다.

행사장 곳곳에 인증 사진 공간과 쉼터를 만들어 관광객의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에는 '자전거로 선도 일주' '일 년 뒤 받아보는 느낌보 우체통' '세상에 하나뿐인 꽃 팔찌 만들기' '꽃차 시음'

등 행사도 진행한다. '수선화꽃 회화전'과 '선도 사진전'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한다.

축제가 열리는 선도에 가려면 해안읍 가룡선착장에서 차도선을 타면 된다. 배를 타고 50여 분이 걸리며, '차량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선박을 증편하고 임시 주차장과 셔틀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4월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에는 형형색색 튜립이 만발한 '임자도 튜립 축제'가 수선화 축제의 뒤를 잇는다.

임자도 튜립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은 흥매화정원도 즐길 수 있다.

내년부터는 흥매화정원에서 40년 넘은 매화나무 3000그루를 감상할 수 있다.

임자도 튜립 축제 기간에는 김동신 작가 기획전 '임자도 흥매화에 물들다'도 진행한다.

초등학교 등 참가자가 직접 튜립을 화분에 심어보거나 장식품, 튜립 조명 등을 만드는 체험 활동도 마련된다.

임자도 튜립 축제는 지난 2021년 지도읍 임자를 잇는 임자대교가 개통하면서 해마다 인기를 더하고 있다.

신안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에서는 4월14~23일 '새우란 축제'가 열린다.

이곳에서는 뿌리줄기의 모양이 새우를 닮은 난초 '새우란'

30만 송이와 함께 신안지역 희귀식물을 확인하고 세계 새우란 품종, 멸종위기 자생란 등을 만날 수 있다.

신안 팔금도는 다음 달 8일부터 22일까지 15일 동안 '팔금섬 유채꽃 축제'를 열며 황금빛으로 물든 유채섬 풍경을 자랑한다.

253ha 규모로 조성된 유채꽃밭에는 곳곳에 인증 사진 공간과 관람로가 마련됐다.

축제 기간에는 섬 입주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여행과 아마추어 사진대회, 학생 사생대회 등이 열린다.

팔금의 구지광과 김, 천일염 등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팔금갈포래국밥을 맛볼 수 있는 향토음식점도 마련된다.

축제장으로 가는 길은 차편으로 목포에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오는 5월에는 퍼플섬(반월도·박지도) 라벤더 축제로 봄꽃 축제를 마무리하고, 7~8월에는 도초도 수국, 압해분재공원 크로코스미아(애기범부채), 흑산 흥도 원추리 축제가 바통을 넘겨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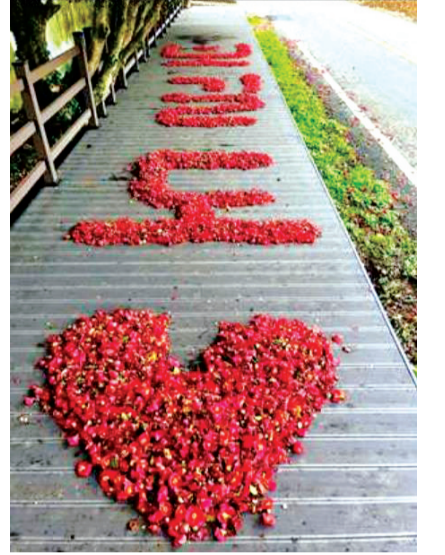
가을의 문턱에는 병풍도 붉은 노을 맨드라미 축제(7~8월), 안좌도 아스타 축제(10월), 압해도 애기동백꽃 축제(12월) 등이 펼쳐진다.

신안군은 연중 열리는 꽃 축제와 함께 흥어와 낙지, 방어, 간재미, 왕새우, 우럭 등 다양한 수산물 축제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보길도 동백꽃 절정

세연정~낙석대 4월 중순까지 관람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완도 보길도에 동백꽃이 절정을 이뤘다고 밝혔다.

보길도에서 가장 높은 해발 431m 격자봉 능선 탐방로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동백나무 터널을 만날 수 있다.

세연정~낙석대 구간 도로변 탐방로는 동백꽃이 송이째 떨어져 탐방로를 붉게 물들었다. <사진>

보길도는 동백나무가 많이 자라 동백섬으로 불려왔다. 사무소는 4월 중순까지 동백꽃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길도에는 윤선도 원림, 동천석실, 보옥리 공룡알 해변 등도 탐방할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계자는 "물 부족과 같은 위기를 느낀 식물의 본능으로 꽃이 많이 달린 것으로 추측된다"며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길도 지역에 활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이 오는 30일부터 4월9일까지 지도읍 선도에서 '수선화 축제'를 열며 1004섬 신안의 봄꽃 축제 시작을 알린다. 178만 송이 수선화로 꾸민 선도 꽃밭(왼쪽). 임자도 튜립 축제 행사장. <신안군 제공>



임자도 튜립 축제 행사장. <신안군 제공>

## 해남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나선다

올해 문화재청 공모 도전

고고 자료·문헌 보유 '전국 유일'

해남군이 올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공모사업을 꼼꼼히 준비해 해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은 올해 문화재청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공모에 도전한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역사문화권 관리와 연구, 전시를 아우르는 집적단지(클러스터)로 조성된다.

국비 400억원을 투입해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실과 전시관, 유적공원 등을 건립한다.

해남은 마한 전 시대에 걸쳐 고고 자료와 문헌 기록, 민속자료를 보유한 전국 유일한 지역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부터는 마한역사문화권 전담팀을 꾸려 역사문화권 정책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과 문화재 시·발굴조사, 문헌 고증 및 마한민속 발굴, 디지털·영상기록화, 연구논문·발굴기록물 집성, 민관학 협력체계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한 군민추진단이 발족하는 등 지역민 동참 열기도 더해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리적, 교통적 제약으로 그동안 역사문화시설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군민추진단의 의지를 모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해남군이 유치함으로써 마한문화권의 균형 잡힌 공동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정 기자 dia@



해남군은 올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신청해 국비 400억원 규모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에 도전한다. 지난 24일 해남군 방산리 독수리봉고분에서 열린 현장자문위원회. <해남군 제공>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리적, 교통적 제약으로 그동안 역사문화시설이 전혀 없었다"며 "이번 군민추진단의 의지를 모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해남군이 유치함으로써 마한문화권의 균형 잡힌 공동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정 기자 dia@

## 목포과학대 파크골프 연습장 새단장

'전국 대학 유일' 연습타석 10개·퍼팅 그린 갖춰

목포과학대학교(총장 이호균)가 25일 파크골프 연습장을 새로 단장해 오픈했다. <사진> 연습타석 10개와 퍼팅 그린을 갖춘 연습장으로 전국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목포과학대학교만이 갖추고 있는 체육시설이다.

목포과학대는 2012년부터 웰빙복지융합과, 휴먼융합복지과에서 파크골프를 교과목으로 편성해 지도자와 강사, 심판 등 전문인력을 꾸준히 배출했으며, 이번 연습장 새단장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크골프에 입문하는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연습장소로 활용될 예정으로 목포시 파크골프협회(회장 신춘식)와 업무협약을 맺고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박경래 목포과학대학교 처장은 "우리나라에 파크골프를 도입한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온 보람이 있다"며 "파크골프장 개소를 계기



로 대학은 물론 목포지역이 파크골프의 메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과학대학교는 지난 2022년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기원 파크골프대회에 참가해 남자부 1위, 여자부 1, 2위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또 2023년 전남도교육청 초·중·고 교사 직무연수 파크골프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한빛원전, 영광 농산물 판로 확대 2억원 지원

'TV홈쇼핑 방송' 사업 협약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사업장 소재지인 영광 지역의 농산물 판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빛본부는 최근 영광농업협동조합과 지역경제 협력·활성화를 위한 '영광농산물 TV홈쇼핑 방송' 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 사업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에게 영광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 확대와 유통단계 감소를 통한 매출증가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

한빛원전은 2020년부터 영광농산물 홈쇼핑 판매 사업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2021년 6억7000만원 첫 매출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울해도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영광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힘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친환경 유기농법 조성, 영광 굴비 판매촉진 홍보방송, 영광쌀 판매 증진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최현규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진도군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 펼친다

연말 우수 마을·단체 시상

진도군은 '군민이 중심되는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을 진행하고 연말에는 우수 마을과 단체를 시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은 최근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 발대식을 열고 진도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진도 환경 조성'을 다짐했다.

<사진>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은 지역민 스스로가 거리

환경과 마을을 가꾸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으로참가자들은 '마을 품베기' '하천 쓰레기 수거' '방치 폐기물 정비' '작은 공원 조성' '벽화 그리기' 등에 동참한다.

바닷마을주민들

은 해양쓰레기를 주워 해안 경관을 보전하고, 불법 투기 예방과 감시 업무도 한다.

진도군은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마을과 단체에 연말 혜택을 줄 예정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은 우리 마을을 스스로 가꾸고 보전하는 첫걸음"이라며 "천혜의 관광지 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군민이 살기 좋은 진도를 위해 힘써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